



산업동향 www.kcca.or.kr

- 6월 신설법인 전년동월비·전월비 모두 큰 폭의 증가
- '09년 7월중 산업용 전력판매량 0.8% 증가
- 한국, 4월부터 세계 수출 순위 10위권으로 상승



‘09년 상반기 신설법인 평년수준 유지

6월 신설법인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큰 폭의 증가

□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설법인은 26,915개로 최근 5년간 평균(26,981개)과 보합세를 기록

* 연도별 신설법인수 : (‘04) 25,192 → (‘05) 27,743 → (‘06) 26,520 → (‘07) 28,155 → (‘08) 27,362 → (‘09) 26,915

○ 6월 신설법인은 5,393개로 전년동월대비로 15.7%(731개), 전월비로는 33.9%(1,364개) 각각 증가하여 1개월만에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

- 이는 비록 최근의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 분석(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과 최저자본금제 폐지(5.28일 시행) 등의 정책적 효과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

□ 상반기(전년동기비)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

○ (업종별)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4.0%)과, 부동산 및 임대업(△27.2%)등의 부진으로 9.1% 감소하였으나, 건설업은 약보합세(△0.6%)를 보였고, 제조업은 2월이후 큰폭의 성장세로 24.4% 증가

- 제조업 : (‘09.1) △13.2→(2)36.3→(3)33.1→(4)28.8→(5)26.4→(6)42.3

- 건설업 : (‘09.1)△28.5→(2)21.5→(3)△4.4→(4)△6.7→(5)12.6→(6)14.8

- 서비스업 : (‘09.1)△36.9→(2)△0.2→(3)△11.0→(4)0.5→(5)△11.9→(6)9.5

○ (지역별) 경북은 보합이고 경기, 서울, 경남 등 8개 지역은 감소한 반면 전남, 대전, 충북 등 8개 지역은 증가

- 서울, 부산 등 8대 도시비중은 57.2%로 전년에 비하여 0.2%p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비중은 59.8%로 전년비 1.1%p 감소

* 8대도시 비중(%) : (‘08.6)57.3→(1~6)57.4→(‘09.5)56.6→(6)59.9→(1~6)57.2

* 수도권 비중(%) : (‘08.6)61.1→(1~6)60.9→(‘09.5)58.3→(5)62.0→(1~6)59.8

○ (연령대별)50대(228개)와 60세이상(180개) 등은 증가하였으나, 40대(734개), 30대(222개)의 부진으로 1.6%(447개) 감소

○ (성별) 여성은 430개(8.4%) 증가하였으나 남성은 877개(3.9%) 감소

○ (자본규모별)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창업은 2.9%(501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감소

전체 전기수요는 1.3% 증가

‘09년 7월중 산업용 전력판매량 0.8% 증가

□ 8월 1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7월중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체의 55.1%) 전년동월대비 0.8%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전력판매량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용 전력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적용

○ 이는 반도체(3.5%), 석유정제(5.5%), 조선(6.7%)업종의 성장세와 자동차업종의 감소 폭(6월: △11.6%→7월:△0.9%) 둔화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에 기인

* 주요업종 전력사용량 증감율(전년동월대비,%) : 조선6.7, 석유정제5.5, 반도체3.5, 기계장비1.3, 화

학제품△7.2, 펄프종이△4.0, 조립금속△2.7, 섬유△2.1, 철강△1.1, 자동차△0.9

○ 타 용도별 전력판매량을 보면,

- 주택용 및 일반용은 기온하락에 따른 냉방수요 감소로 각각 낮은 증가세인 1.4%, 1.9% 증가

- 교육용은 학교 신·증축과 학습설비확충의 영향으로 농사용은 재배규모 증대 및 설비대형화 추세 영향으로 각각 8.7%, 7.6% 증가

- 심야전력은 난방수요 감소와 계속되는 판매량 감소 추세에 따라 5.5% 감소

□ 한편, 7월중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평균 기온 하락(△1.8℃)에 따른 냉방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0.5% 증가한 346.5억kWh를 기록

* 월 평균기온 : ('08.7) 25.9℃ → ('09.7) 24.1℃(△1.8℃)

○ 거래가격은 전년동월대비 LNG·유류 등 주요 연료의 가격하락 및 발전기계획예방정비량 감소(△6.2%, '08.7:226만kW → '09.7:212만kW)로 저렴한 기저발전량이 증가해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43.6%, 평균 구입단가(정산단가)는 25.9% 각각 하락하였음.

* 기저발전량 증가량 : ('08.7) 27,203GWh → ('09.7) 28,835GWh (6.0% 증가)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

* 정산단가 : 실제 전력거래를 정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주요 연료원별(원자력, 유연탄, LNG 등)로 SMP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산출된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총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 7월중 최대전력수요는 6,080.1만kW(7.20일(월) 15시)로서 월평균 최고기온 하락(△1.5℃)의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2% 감소하였으며, 공급예비율은 18.6%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음.

* 월평균 최고기온 : ('08.7) 29.4℃ → ('09.7) 27.9℃ (△1.5℃)

참고 7월중 전력판매 및 전력시장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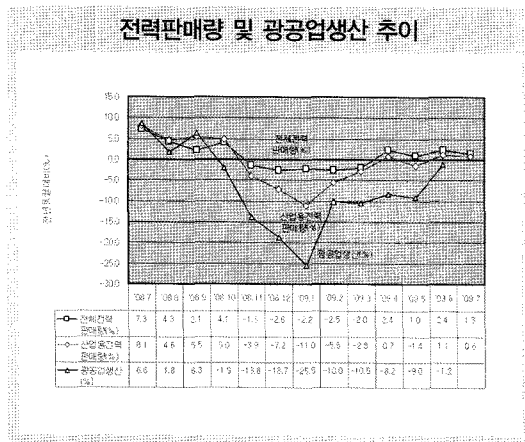
□ 용도별 전력 판매량

(단위: 천MWh,%)

구 분	2009년			2008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산 업 용	17,232(1.1)	17,872(0.8)	116,903(△2.6)	17,726(8.1)	120,004(7.1)
교 육 용	486(14.4)	539(8.7)	3,704(11.7)	496(11.5)	3,314(10.8)
주 택 용	4,704(3.6)	4,763(1.4)	34,330(2.7)	4,696(6.1)	33,421(5.4)
일 반 용	6,922(4.5)	7,771(1.9)	51,542(3.3)	7,630(6.2)	49,918(7.8)
농 사 용	723(10.7)	708(7.6)	5,339(10.0)	659(7.1)	4,85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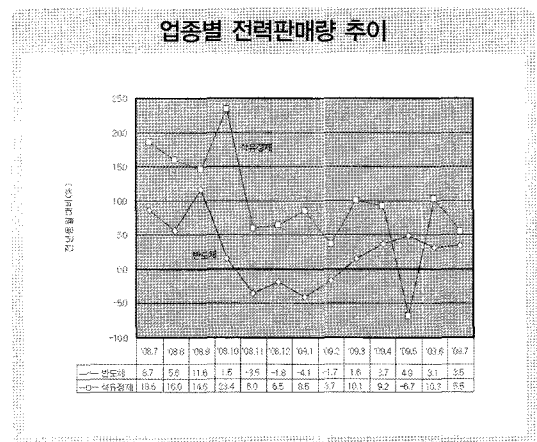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08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가 로 등	215(1.4)	209(3.0)	1,652(Δ1.5)	203(2.7)	1,678(6.1)
심 야 전력	799(Δ5.9)	568(Δ5.5)	13,226(Δ2.7)	601(3.5)	13,598(3.5)
총 계	31,080(2.4)	32,431(1.3)	226,696(Δ0.0)	32,011(7.3)	226,788(6.9)

* ()내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자료: 한전, 통계청(광공업생산지수)



* 전년동월대비증감율

* 자료: 한전

□ 전력 거래량
○ 일평균 거래량 : 11.2억kWh(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월간 거래량 : 346.5억kWh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월 평균기온 : ('08.7) 25.9℃ → ('09.7) 24.1℃(Δ 1.8℃)

(단위: 억kWh, %)

구 분	2009년			2008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일평균 거래량	10.8(5.3)	11.2(0.5)	10.9(1.7)	11.1(10.1)	10.8(6.3)
월간거래량	322.8(5.3)	346.5(0.5)	2,316.6(1.2)	344.8(10.1)	2,289.7(6.8)

□ SMP 및 정산단가

○ 월평균 SMP : 66,39원/kWh

- 전년동월대비 LNG·유류 등 주요 연료의 가격하락* 및 발전기계획 예방정비량 감소(△6.2%, '08.7 : 226만kW → '09.7 : 212만kW)로 저렴한 기저 발전량이 증가**해 43.6% 하락

*주요연료 열량단가(단위: 원/Gcal)

- LNG : ('08.7월) 65,466 → ('09.7월) 40,192(△38.6%)

- 유류 : ('08.7월) 66,279 → ('09.7월) 57,341(△13.5%)

** 기저발전량 증가량 : ('08.7) 27,203GWh → ('09.7) 28,835GWh (6.0% 증가)

*최고 SMP : 96.68원/kWh(7.21(화), 12시), 최저 SMP : 36.44원/kWh(7.27(월), 04시)

○ 월평균 정산단가 : 54.6원/kWh

- 전년동월대비 주요 연료의 가격하락 및 계획에 방정비량 감소로 저렴한 기저발전량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25.9% 하락

(단위: 원/kWh, %)

구 분	2009년			2008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SMP	74.08(△30.0)	66.39(△43.6)	113.6(4.0)	117.77(54.8)	109.23(36.8)
정산단가	51.12(△18.5)	54.6(△25.9)	68.03(6.5)	73.72(31.6)	63.9(13.7)

*주요 연료원별 정산단가('09.7월, 원/kWh): 원자력(27.8), 유연탄(54.5), LNG(103.6)

□ 전력 수급

○ 7월중 최대전력수요는 6,080.1만kW(7월20일(월) 15시)로서 월평균 최고기온 하락(△1.5℃, 29.4℃→27.9℃)의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2% 감소

○ 전력공급능력은 7,211.3만kW로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공급예비율은 18.6%로 안정적 수준 유지

(단위: 만kW, %)

구 분	2009년			2008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최대전력수요	6,012.9(8.3)	6,080.1(△3.2)	6,264.5(△0.2)	6,279.4(8.4)	6,279.4(8.4)
전력공급능력	6,836.3(1.9)	7,211.3(5.3)	6,874.8(0.3)	6,851.9(4.9)	6,851.9(4.9)
(공급예비력)	823.4(△28.8)	1,131.2(97.6)	610.3(6.6)	572.5(△22.7)	572.5(△22.7)
(공급예비율)	13.7(△7.1p)	18.6(9.5p)	9.7(0.6p)	9.1(△3.7p)	9.1(△3.7p)

*공급예비력 : 공급능력-최대전력수요, *공급예비율(%) : 공급예비력 ÷ 최대전력수요

'09.1~4월 주요 국가의 수출실적 분석 결과

한국, 4월부터 세계 수출 순위 10위권으로 상승

□ '09.1~4월 세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10위로 두단계 상승

* '08년 수출시장점유율 순위 : (8위)벨기에 (9위)러시아 (10위) 캐나다 (11위) 영국 (12위) 한국

* '09.1/4 수출시장점유율 순위 : (8위)벨기에 (9위) 영국 (10위) 캐나다 (11위) 한국 (13위)러시아

* '09.1~4월 수출시장점유율 순위 : (8위)벨기에 (9위) 영국 (10위) 한국 (11위) 캐나다 (13위)러시아

최근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09.1~4월)

(단위: 억불, %)

구분	독일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6위)	이탈리아 (7위)	벨기에 (8위)	영국 (9위)	한국 (10위)	캐나다 (11위)	홍콩 (12위)	러시아 (13위)	싱가폴 (14위)	멕시코 (15위)
수출액	3,420	3,374	3,294	1,618	1,450	1,291	1,214	1,120	1,078	1,049	1,015	908	787	776	717
증감율	-33.3	-20.5	-22.4	-39.6	-33.2	-32.1	-35.1	-33.5	-33.5	-23.6	-36.1	-20.5	-47.7	-32.2	29.0

○ 전세계(상위 15개국, '08년 비중 61.6%)의 '09.1~4월 수출감소율은 △30.6%이나, 우리는 △23.6%로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10위로 도약

○ 캐나다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비중 77.7%)의 경기불황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스의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급감(△36.1%)하여, 11위로 하락

* 주요 수출국('08년, 비중) : 미국(77.7%), 영국(2.7%), 일본(2.3%), 중국(2.2%), 멕시코(1.2%)

* 주요 수출품('08년, 비중) : 원유(13.9%), 가스(7.5%), 자동차(7.1%), 항공기(1.4%), 의약품(1.3%)

□ 한편, 5월 수출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벨기에를 제외하고 1~5월 수출 통계를 분석하면, 11위인 캐나다와의 격차는 확대(40억불→80억불)되었으나, 9위인 영국과의 격차는 유지(30억불)되고 있음

최근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09년 1~5월)

(단위: 억불, %)

구분	독일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6위)	이탈리아 (7위)	벨기에 (8위)	영국 (9위)	한국 (10위)	캐나다 (11위)	홍콩 (12위)	러시아 (13위)	싱가폴 (14위)	멕시코 (15위)
수출액	4,279	4,261	4,114	2,034	1,831	1,620	1,544	1,120	1,360	1,330	1,254	1,172	1,014	978	888
증감율	-33.3	-22.0	-23.0	-38.9	-32.6	-31.8	-35.3	-46.7	-33.3	-24.7	-37.4	-19.1	-47.4	-32.1	-29.7

□ '09.1~5월 우리나라의 수출감소폭이 영국, 캐나다보다 작아, 주요 경제변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3/4분기내 사상최초로 9위권으로 도약도 가능할 전망

○ 月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09.4월 이후 300억불 내외로 회복한 반면, 영국은 280억불, 캐나다는 240억불 내외에서 정체된 상태

* 한국 수출액(억불, 증가율 %)

: ('09.1/4)746(△25.0) → (4)304(△19.8) → (5)281(△28.6) → (6)326(△12.4)

* 영국 수출액(억불, 증가율 %)

: ('09.1/4)806(△32.9) → (4)272(△35.2) → (5)283(△32.5)

* 캐나다 수출액(억불, 증가율 %)

: ('09.1/4)773(△35.1) → (4)242(△39.0) → (5)239(△42.4)

□ 지식경제부는 금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내의 수출강국으로 진입이 확실시되나, 최근 유가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관련부처·수출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출총력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임